

지역 소식통

‘제13회 지평선광활 햇감자축제’ 취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신광식)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13회 지평선광활햇감자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국내는 물론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세계적인 위기로 번지자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긴급회의를 열고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신광식 축제추진위원장은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의 경우 감자가 출하되는 시기 등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축제를 진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혜택 확대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김제시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등 7종의 전국 공통지원 서비스와 ‘출산장려금(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이 이상), 셋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출산축하용품 지원(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등 3종의 김제시 자체 지원내용이 기존보다 소폭 확대되었다.

이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출산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는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출생신고 후 정부24 (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현장행정의 날’ 운영

군 농업기술센터, 선배가 이끄는 ‘신규직원 교육의 날’ 3월~11월까지, 매월 2회 신규공무원들 농업 현장 체험

완주군이 영농시기에 맞춰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해 신규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부터 매월 2회 적극 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행정의 날은 3월부터 11월까지 작목별로 영농시기에 맞게 일정을 잡아 선·후배 지도사가 농업현장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자가 작물 생육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면 신규직원은 내용을 숙지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주군이 ‘현장행정의 날’을 맞아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블루베리 시범포장에서 지도공무원 20명이 모여 블루베리 전지전정 실습교육을 추진했다.

이후 농장주에게 현장 동향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해 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지난 1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블루베리 시범포장에서 지도공무원 20여명이 모여 블루베리 전지전정 실습교육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사업장 방문이 지양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에서 이뤄졌다.

교육은 완주군블루베리연구회를 다년간 담당하며 기술지도와 현장에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용 농촌지원과장이 직접 진행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블루베리, 감자, 마늘, 딸기 등 다양한 시범포장이 있어 작물에 대한 생육상황을 시기별로 관찰하기 좋은 학습장소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규공무원이 업무에 잘 적응하고 지도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현장 대처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선배공무원의 역할이다”며 “농업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공직생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전북도 일자리 창출 최우수’ 선정

인센티브 1억원 확보

청년일자리·소셜굿즈 호평

완주군이 전북도에서 시행한 ‘2020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가 도내 시군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해 일자리를 창출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도와 중앙 및 도 일자리 사

업 참여도 등 일자리 창출 실적 전반에 걸쳐 평가한 결과다.

완주군의 경우 2017~2018년 연속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2년만에 다시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완주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학생 인턴, 청년 창업가 육성 등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과 완주 로컬푸드 성공모델을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 서비스·상품 등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소셜굿즈 2025 플랜’ 정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대

한 적극적인 응모, 유관기관 협력, 일자리 공시제 수상 실적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도심형(기업 일자리)과 농촌형(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도 완주군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 일자리 정책으로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고맙고, 또 고맙다”... 박성일 군수, ‘깜짝 편지’ 격려

박성일 완주군수가 코로나19 격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깜짝 편지를 보내 격려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군수는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건강이 군민의 건강이다”며 직원들을 응원하고 따뜻하게 격려했다.

편지에서 박 군수는 “20일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지 두 달이 된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총출력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열심히 노력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격려했다.

이어 “현장에서 피로로 졸음과 씨름하는 직원들을 볼 때 안쓰러움을 금할 수 없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체적 대응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우리 완주군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때가 아니다. 용기를 재충전해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연일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공덕농협협동조합은 19일 박준배 김제시장, 김영일 농협전북본부경제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고구마 첫 홍콩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진행했다

생고구마 첫 홍콩 수출 개시

해외 바이어, 김제 고구마 상품성 인정... 농가 소득향상 기대

김제시 공덕농협협동조합(조합장 문홍길)은 19일 박준배 김제시장, 김영일 농협전북본부경제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생고구마 첫 홍콩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용 고구마는 작년 말부터 홍콩 바이어와 접촉하여 우리 고구마의 상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500g 소포장 유통으로 2.4톤을 홍콩 현지 대형유통매장인 웰컴(Wellcom), 이온(AEON) 마켓에 납품되어 판매될 계획이다.

공덕농협에서는 고구마·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흡소평, 온라인 소평 판매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또한, 고구마 가공품인 말랭이, 양갱 등도 추가로 수출할 예정이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구마 수출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에 따라 지역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기쁘고, 수출 관련 및 고구마 판매지원을 행정에서 적극 보조하여 성공적인 수출 시례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사차량 과속민원에 따른 간담회 개최

김제시 진봉면 지방도 702호선(만경~심포간)을 이용하는 덩프터트 과속의 문제로 진봉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청 건설과(과장 이도명) 주재로 지난 18일 오후 2시 진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용운 진봉면 이장협의회회장의 10명의 지역주민들은 공사차량 과속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청 건설과에서는 지방도 702호선 과속 발생구간 3개소에 대하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및 집진차량을 이용한 도로청소등의 이행의지를 표명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공사차량 과속운전 예방교육, 마일별 안전요원 배치, 과속운행금지 현수막 게시, 공사차량에 현장시별 표찰 부착, 살수차 운행등의 이행의지를 표



명했다. 이도명 건설과장은 지역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으며 앞으로도 약속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